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 “사람 중심 따뜻한 복지 실천”

개관식 갖고 주간보호·작업치료 등 서비스 돌입
“장애인 삶의 질 높이고 공동체 공간으로 역할”

광양시는 지난 15일 중마광역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중마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정현복 광양시장, 진수화 광양시의장을 비롯해 삼동회 법인 유희영 이사장, 장순욱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장, 이용자 대표 등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소 인원 20여 명이 참석해 중마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의 테이프 커팅에 이어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그동안의 중마장애인복지관의 탄생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에 이어 법인 이

사장의 인사말, 정현복 광양시장의 축사, 복지관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등 운영철학을 담은 직원들의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들의 더 나은 치료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SK E&S(주) 문상학 전력사업부팀장이 직접 참석해 사회공헌사업으로 1억 원의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로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709㎡의 규모로 2020년 5월 4



일 준공했다.

시는 그동안 직원 채용, 기자재 설치, 이용자 모집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주간보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

미술치료, 재가복지사업 등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앞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디딤돌 삼아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나주시, 동신대 산학협력단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치매 극복·친화적 환경 조성 위한 치매 파트너로 활동



나주시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5일 동신대 산학협력단(단장 조준)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이날 현판식을 가

졌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지역사회 치매환자 발굴과 나주시치매안심센터와의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 치매예방·극복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사, 치매사례관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 단장은 “나주시 치매 극복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은 물론 환자 개인과 가족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치매극복 선도단체에 동참을 원하는 단체·기업·학교 등은 나주시치매안심센터(☎339-4777)로 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 지원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해야
가구원 전체 소득 중위 75% ↓
기준 재산 3억 원 초과 안돼

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기준 재산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다른 복지제도 수급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지원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 복지포(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곡성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해 긴급 생계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조사와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니.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